



##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진행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회장 최영숙)는 지난 10~11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대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지역의 빙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낮시간 동안 연수를 추진하기가 어려워 이를 통한 진행되었으며 금요일은 어린이 안전 이론교육을 토요일은 안전교육 실습 및 목공체험 활동을 하면서 종사사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업무 연찬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올부터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시설로 변경된 지역아동센터는 20년도에 이어 21년도에도 내실있는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장, 남원 이미숙 여성회장 취임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인월면 이미숙 여성의용소방대장이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제11대 여성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미숙 여성회장은 2002년 인월여성의용소방대에 입대, 20여 년을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출신수영하여 코로나19 방역 활동, 백신 접종센터 지원, 근무, 수해복구 활동 및 소외계층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숙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재난현장의 안전파수꾼으로서 전라북도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두 기자

## 정읍 샘골농협·알빛바이오, 북면 마을가꾸기에 성금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에서 1세대 교류를 위해 추진한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알빛바이오(대표 김민석)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알빛바이오는 지난 8일(수) 북면 가전마을(영농회장 고인수)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을가꾸기에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열린 전달식에는 허수종 샘골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김민석 알빛바이오 대표, 고인수 가전마을 영농회장님과 마을주민이 참석했다.

허수종 조합장은 “샘골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알빛바이오 김민석 대표님과 고인수 가전마을 영농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샘골농협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알빛바이오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자주 찾아뵙자는 뜻하지만 가전마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항상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군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 농협 부안군지부·관내 6개농협, 취약계층 사랑의 쌀 110포 기탁

농협 부안군지부(지부장 조인갑)는 13일 부안 관내 지역농협(부안, 부안중앙, 남부안, 계화, 변산, 하서농협)과 함께 부안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쌀(10kg) 11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김민석 부안군수를 비롯해 농협 부안군지부 조인갑 지부장과 관내 6개 지역농협 최우식 조합장이 참석했다.



부인간 지역농협을 대표해 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 남부안농협 최우식 조합장이 참석했다.

농협 부안군지부 조인갑 지부장은 “최근 우리 부안지역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군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안군지부와 관내 지역농협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군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남원 곳곳 추석 맞아 이웃사랑 ‘한가득’

남원 지역에서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나눔의 손길이 가득하다.

13일 남원시 새마을단체에서는 회원 50여명과 다문화 가정 10여명이 함께 추석맞이 밀반찬 나눔과 송편 빙기 행사를 실시해 장조림 멸치조림, 김자반과 송편을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650가구에 전달했다.

등충동은(동장 김은영) 지난 10일 관내 경로당 7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일부 등을 여쭙고 경로당 환경 점검하고, 어르신 한분과 소통하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덕담을 나누며 밀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7월부터 반찬조리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18가정에 영양 풍부한 “밀반찬 지원사업”을 추진, 스스로 식사 해결이 어려워 영양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가구를 선정해 반찬봉사단이 매월 2회 텔레야방

식으로 영양 풍부한 밀반찬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신내면의 가정정보원 연화사 여강(輿康) 주지스님은 112만원 상당의 백미 10kg 36포를 신내면에 기부했으며, 연화사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과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꾸준한 쌀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기두 기자



## 농어촌공 정읍지사, 석우저수지 수질개선·환경정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는 지난 10일 유관기관 고부면 국립공원 내장산 사무소 저수지 상류 지역농업인 등 공동으로 고부면 장문석우저수지에서 수질개선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장문리 소재 석우 저수지의 수질관리와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해 고부면 국립공원단내 장산사무소, 상류지역 농업인, 농어촌공사 등 50여명이 참여해 저수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시작 전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손소독과 참가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다. 또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약 5톤 가량의 저수지 내 쓰레기를 수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무주제일건재 이승훈 대표, 쌀 200포·김 200세트 기탁

무주제일건재 이승훈 대표가 13일 무주군청을 방문해 백미 200포와 김 200세트를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무주군에 기탁했다.

이승훈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횡인홍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을 펼쳐 감사하다”라며 “마음을 담은 정성에 취약계층 군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새남원라이온스클럽,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남원시는 새남원라이온스 클럽(회장 김성일)이 지난 11일 시에서 추천받은 운봉읍 장애인 가구에서 회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시설자대에 놓인 대상자로,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되지 않아 집안 곳곳이 각종 쓰레기와 악취 때문에 앉을 곳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으로 폐기물 처리, 도배장판, 낡은 전선교체, 출입구비기름을 설치하고 생필품 지원 등 500만원상당 비용을 회비로 지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추석맞이 자매결연 기관 위문

남원소방서는 지난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일유엔아이에 위문물품(라면, 세탁세제 등)과 손 편지를 전달했다.

남원소방서는 2011년 성일유엔아이와 자매결연 후 현재까지 명절에 나눔 지원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취약계층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소방공무원 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시설에서 필요한 생활물품과 소방공무원들이 작성한 편지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방문할 수 없어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박덕규 서장은 “사회 전반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요즘, 소외계층 등 주위를 살펴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속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